

5살 쌍둥이 남매 결혼시킨 부모



▲ 결혼식을 올린 쌍둥이 남매. 사진=bannedbook.org

태국의 한 30대 부부가 현지의 불교적 가르침에 따라 쌍둥이 남매를 결혼시켰다.

지난 4일 태국 니콘시탐마랏주의 한 가정집에서 5살 쌍둥이 남매 와치라워트 비 무시카와 린라다 브림 무시카의 결혼식이 열렸다. 전통혼례로 치러진 이날 결혼식에는 가까운 이웃과 친인척 등이 참석해 쌍둥이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쌍둥이는 불교 승려의 축복 의식 속에 부부가 됐다.

정식 혼례인 만큼 절차대로 지참금이 오고 갔으며, 예식 후에는 쌍둥이와 부모, 하객이 차례로 춤을 추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쌍둥이 남매를 결혼시킨 이유에 대해 아버지 위라 싹(31)은 미신적 신념이긴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쌍둥이의 아버지는 “전생의 연인이 못다 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현생에 쌍둥이 남매로 태어나는 것”이라면서 “이런성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결혼식을 치러주지 않으면 나중에 둘 중 한 명이 아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르와디(30) 역시 “쌍둥이 남매를 얻은 것은 행운이었다. 하지만 전생의 업이 걱정됐다. 업을 청산하기 위해 남매를 결혼시켰다.”고 말했다.

현지 불교신자들은 쌍둥이 남매가 ‘카르마’, 즉 전생의 업을 갚기 위해 함께 태어난다고 여긴다. 다만 쌍둥이의 결혼은 관습에 따라 진행되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성인이 된 후 각자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다.

아마존 정글 불시착 조종사 36일 만에 구조



▲ 가족과 재회한 안토니오. 사진=유튜브(FSX Aviation) 캡처

지난 1월 28일, 브라질 파라주 알렌케르에서 출발해 아우메이링으로 향하던 경비행기 한 대가 이륙 직후 실종됐다. 비행기에는 조종사 안토니아 세나(36)가 타고 있었다. 구조대는 헬기를 띄워 공중 수색을 벌였지만 비행기 잔해조차 찾지 못한 채 수색은 종료했다.

비행 도중 기관 고장으로 아마존에 불시착한 안토니오는 불이 붙은 비행기에서 비상식량과 소지품을 챙겨 가까스로 탈출했다. 이후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수색 헬기를 보고 애타게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발견되지 못했다.

구조대가 일주일 만에 수색을 중단하자, 안토니오는 살길을 찾아 걷고 또 걸었다. 밀림 속을 헤치며 새알과 열매를 주워 먹으며 버텼다. 그리고 사고 발생 36일째였던 지난 6일 드디어 살길이 열렸다. 정글 속을 헤매고 다니던 그의 눈에 하얀 방수포가 보였다. 방수포 속에는 밥과 물, 도구가 든 바구니가 있었다. 사람 흔적을 찾은 것이다. 그는 밤나무를 따라 걸던 중 마침내 밤 잤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족에게 생존 소식을 전했다.

안토니오의 생존 소식을 들은 구조대는 다시 헬기를 띄웠다. 안토니오는 구조 헬기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미한 부상과 탈수 증세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가족과 재회한 안토니오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내 생일 이틀 전에 사고가 났다. 오직 가족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마음을 강하게 먹고 버텼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이슬람 율법 어긴 남녀 공개 태형

인도네시아 샤리아 경찰이 지난 8일 혼외정사를 저지른 남녀 4쌍에게 특별행정구역인 아체의 주도 반다아체 주정부 청사에서 이슬람 율법 위반 혐의로 태형을 집행했다.

이날 태형에 처한 남녀 4쌍은 모두 혼외정사를 금지한 샤리아법(이슬람 관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마스크를 쓰고 태형 장소에 집결한 이들은 태형대로 향하기 전 의료진의 진찰을 받았다.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수갑을 찬 채 태형대에 무릎을 꿇었으며, 죄질에 따라 10~20대의 매질을 당했다. 이들은 복면을 쓴 집행관이 휘두르는 등나무 회초리가 등을 때릴 때마다 비명을 내질렀다. 공개 태형은 대개 많은 관중이 몰리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내에서 소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형이 집행됐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를 적용하는 유일한 곳으로 주민 98%가 무슬림이다. 2003년 샤리아를 합법화했다. 샤리아법은 음주, 도박, 동성애, 간음,



▲ 공개 태형 장면. 사진=유튜브(HL Daily News) 캡처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린다.

인권단체들은 공개 태형을 중단하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지만, 아체주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태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